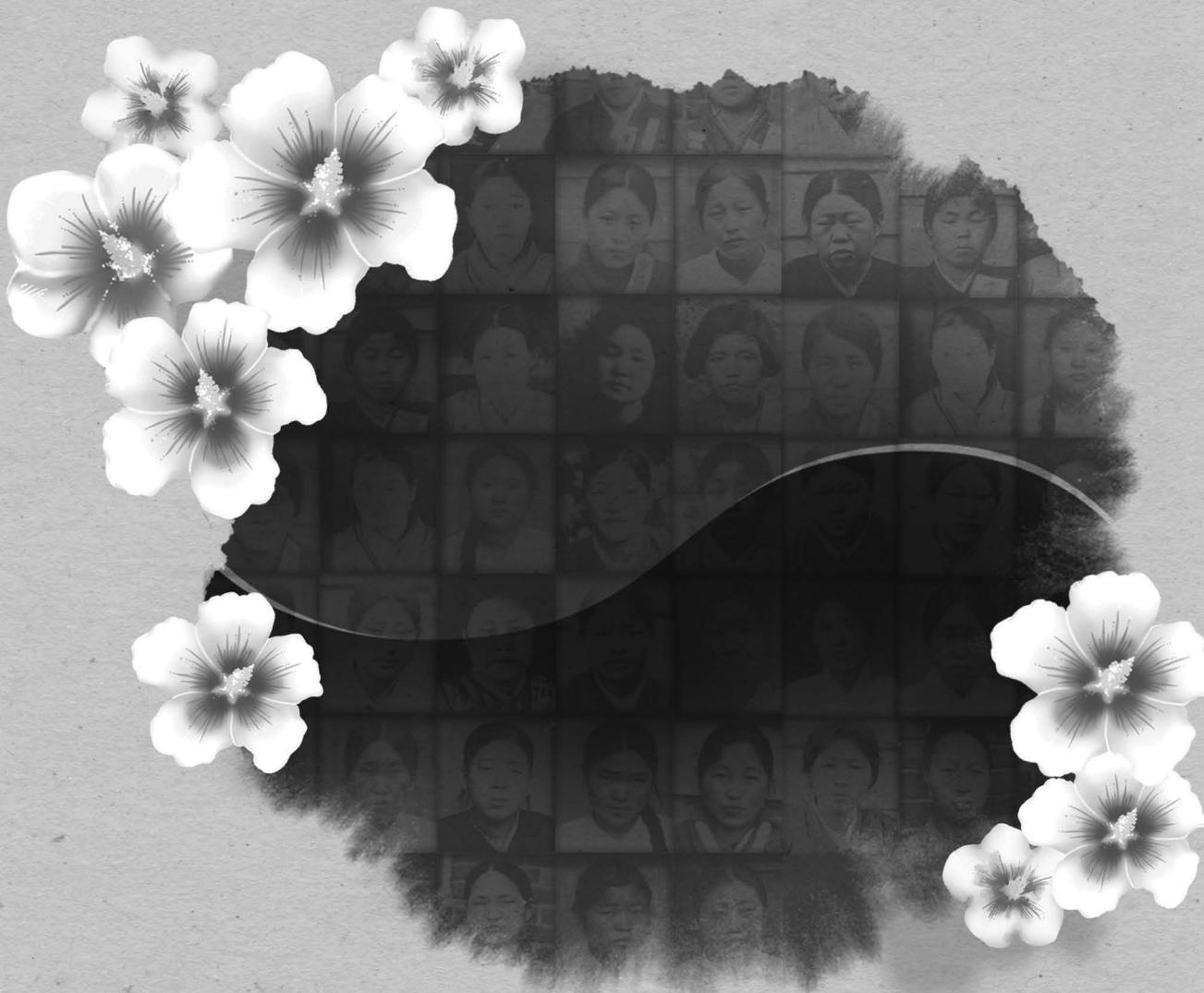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일시 2018년 4월 9일(월)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Contents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발 표** 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조모 이은숙, 고모 이규숙
김동수 박사(미국 버지니아 Norfolk State University) - 모 한도신 11
최성주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 조모 김성녀 25
- 토 론** 신영숙 기획위원장(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정아 전문관(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종걸 의원님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이 올해로 9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일에 매진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끝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었습니다.

독립운동 전선에 나섰던 여성들의 신산한 삶을 어찌 필설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견디고 투쟁하면서 어르신 봉양과 육아는 물론이고 가사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우리 항일여성독립열사들은 반봉건운동의 선각자였고,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페미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들은 망각된 존재였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기록 자체가 매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2017년 광복절 기준 1만 5천여 명에 해당하는 남성 서훈자에 비하여 여성은 296여 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추모하는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선양사업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회의장 정세균

축사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물려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국 99주년을 맞아 건국의 어머니를 기리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종걸 의원님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독립운동가의 자랑스런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를 보면 남성이 98%이고 여성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한말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남녀를 구분하던 인습에 가로막혀 독립운동사에 이름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국난의 시대에 자신을 버리고 가족과 민족을 지키며 들꽃처럼 살다 간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복원하여 우리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온전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지위는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나마 선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성의 권익도 많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독립운동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로 남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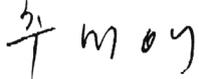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희생했던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국민의 가슴 속에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정

통성을 바로 세우고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묻혀진 여성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오늘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종걸의원님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후손이지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어르신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독립운동가가 남성의 조역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부각된 영화 <암살>을 보고 그 분들의 존재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부부의 고난한 삶이, 한 가문의 부침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간 독립운동사 연구는 운동가의 삶보다는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독립운동가도 민족해방의 대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가지면서도 좌절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내일을 걱정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운동가들의 그 기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운동가들은 생계와 어린 봉양과 자식도 책임져야 했기에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찾고 검증하는 작업은 여성항일운동가의 삶을 오롯이 드

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성에 비해서 공식기록이 훨씬 적기 때문에 후손들이 직접 채록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여성독립운동사 바로세우기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설훈입니다.

먼저 「물허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를 주제로 뜻 깊은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이종걸 의원님과 김희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발제를 맡아주신 김동수 박사님과 최성주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이 남긴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선진국과 어깨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사에 유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일투쟁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갈수록 퇴색되어가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는 여러모로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면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투쟁정신과 헌신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제에 항거했던 수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역사인식도 재정립하는 자리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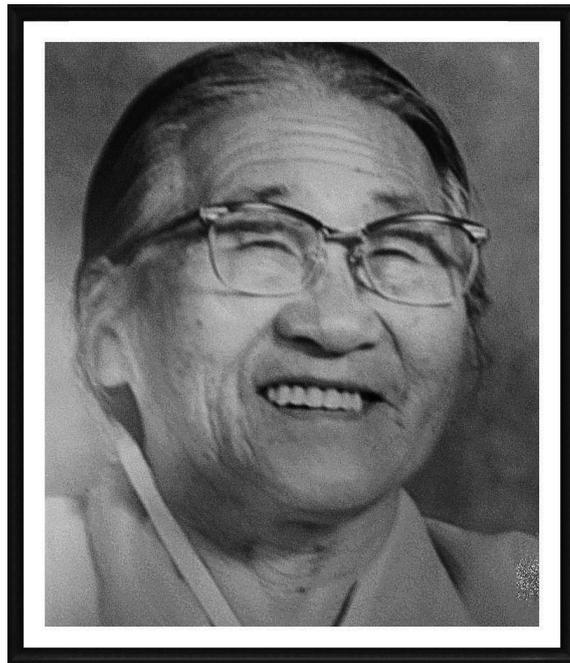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 훈

“나라사랑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나의 어머니 한도신”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김동수 교수_ 미국 버지니아 Norfolk State University

1. 인간 한도신, 가족, 시대 (1895-1915)



한도신(韓道信, 1895. 7. 5. - 1986. 2. 19)

● 1926년 초가을 상해 부둣가에서 광낙원 할머니 (김구선생 모친)가 세 어린 것의 어머니, 도신의 손을 만지며 울먹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네같이 지독하면 일본 사람들한테서 벌써 독립했겠네.” 같은 자리에서 조마리아 할머니 (안중근선생 모친)도 도신을 슬피 보내며 감탄을 토했다. “도신이는 남자보다 더한 조선의 영웅일세.” 그러나 그 영웅은 어느 공식기록에도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처럼 민족사의 밑바닥 어디에 묻혀왔다. 여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라사랑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한 여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평생을 불사른 숨은 애국자, 나의 어머니 한도신을 간략히 소개한다.



당찬 소녀 한도신, 50년 후의 모습

● 한도신은 1895년 7월 5일 평안남도 고평군 신흥리에서 중산층 농가인 한성은과 흥필례의 장녀로 태어났다. 도신이 7살 때 온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강요와 위협으로 온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 도신이 태어나던 해는 명성왕후가 일본 무도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던 해여서 조선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폭정에 대해서 무한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도신의 부친, 한성은 장로도 그런 반일 민

족주의자의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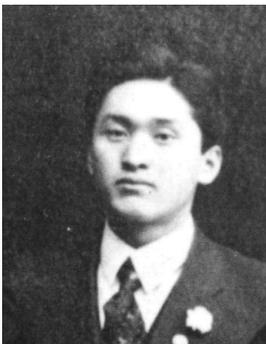
- 도신이는 눈과 키가 작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처녀였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당당하며 무척 총명하여서 7살에 어깨 넘어 배운 한글을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개화된 집안에서 등불이 되었다.

- 교육은 18세까지 주로 한문과 실업교육을 받았다. 13세부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당을 다녔고 그 후에는 군에서 경영하는 취업견습소와 평양에서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양잠기업강습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도청의 관비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으나 부친의 반대로 포기했다. 철저한 반일 가정교육을 받았다.



철저한 반일 기독교 부모

2. 결혼과 수난의 시작 (1915-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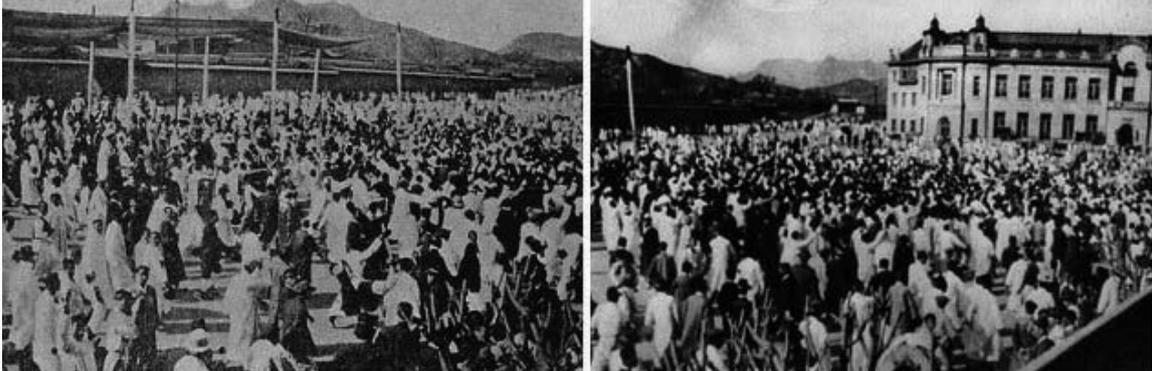


17세 소년신랑, 6년 후

- 1915년 12월 23일 평양 송실중학 (지금의 고등학교) 학생인 김예진 (金禮鎭, 1898년 9월 5일 생)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 결혼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조혼을 금하는 당시 교회법에 따라 약혼을 하고도 신랑이 17세 되기까지 18개월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신랑 될 사람이 큰 뜻을 품고 친구와 미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생과부를 면하고 다시 굳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 1919년 2월 말일, 남편이 평양시 만세운동을 몰래 준비하며 송실대학생 5

명을 집으로 데려와 수 백개의 태극기를 만드는 것을 밤새 도와주고, 선두시위를 위한 대형 태극기를 자봉 침으로 직접 제작했다.



전국으로 퍼진 기미년 만세운동

● 3월 1일 시작된 “만세사건”은 원래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포하는 전국적인 평화시위였다. 몇 달 계속된 이 시위는 2,023,000명이 1,542 시위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잔인한 폭력으로 억압하였다 (7,509명 사살, 15,961명 부상, 52,770명 구금; 47교회, 2학교, 715가옥 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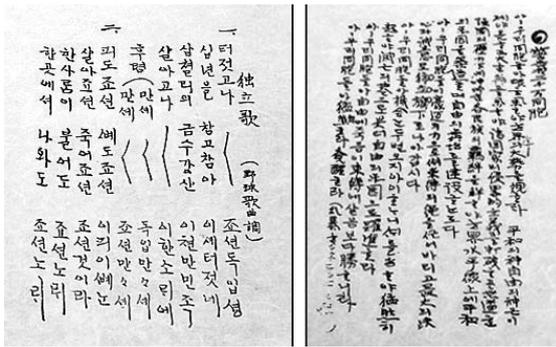


일제 군경의 잔인한 진압과정

● 남편에게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락이 왔을 때 자금 (시부모 1,400냥, 패물 판 것 400냥)을 마련하여 11월에 무사히 상해로 망명하도록 지원했다.

3. 임정요원 은익과 고문, 파산, 폭탄운반 (1920-1922)

● 독립운동 비밀조직의 요청으로 격문 (독립투쟁에 나서라는 선전물)을 평양시내에 돌렸고, 한번은 발각될 위기를 만났으나 민첩한 기지로 화를 면했다.



등사판에 찍어 돌린 격문

● 1920년 봄, 시부모의 지시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요원 4명을 자택 내실에 숨기고 몰래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았다. 어느 날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모녀가 끌려가 3일간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그 사건으로 시아버지는 바로 만주로 망명하고, 성업 중이던 전기정미소는 차압을 당하고 수취계정이 몰수되어 종래 파산하였다. 그리하여 장녀와 함께 본가로 돌아가 살았다.

● 1920년 여름, 고국에 다시 밀입국하여 활약하던 남편을 도와 신태평에서 평양까지 야밤중에 폭탄을 머리에 이고 운반하였다. 도중에 경찰이 아니라 노상강도를 만났으나 머슴 (남편)을 거느리고 가는 귀부인 행세를 하며 임종을 앞둔 친정어머니를 속히 만나 약재를 드려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해서 위기를 면하고 위태로운 사명을 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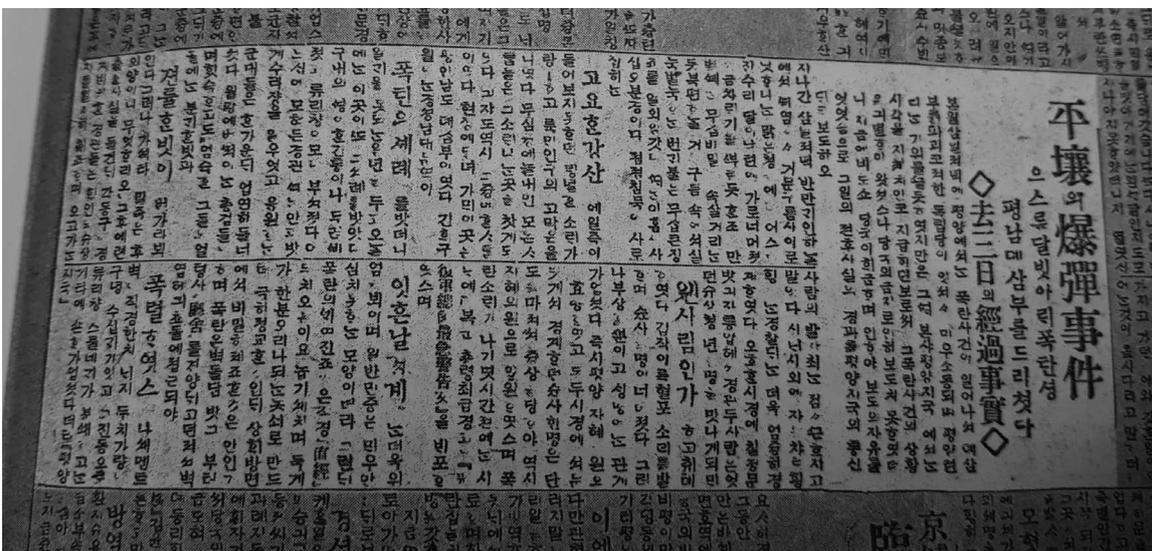


폭파한 평안남도 도청건물

● 1920년 7월 29일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과 논쟁을 하다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 1920년 8월 3일 오후 9시 반, 임시정부 산하 <대한독립군> 총령의 특별지령으로 남편과 두 동지인 문일민, 안경신이 평안남도 도청(제3부)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폭파사건은 친선방문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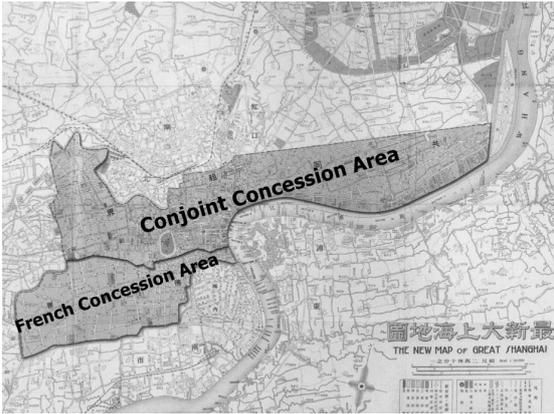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려는 연쇄 작전계획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다.



평안도 도청폭파사건 속보 (매일신보, 1920년 8월 19일)

- 평양고무공장의 숙련공으로 12시간 이상 일해서 얻은 수입의 반 이상을 상해로 망명한 남편에게 보내 생활비와 함께 인구세와 애국금에 사용하도록 지원했다.

4. 상해 피신과 임정식구 지원 (1922-1926)



상해 지도, 1920년대

- 1922년 9월 2일, 두 딸을 데리고 상해로 건너가 불란서 조계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 임시정부 요인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김규식, 이강, 이시영 선생 등)을 위해서 시중들며 도왔다. 특히 자주 방문오시는 백범선생을 정성껏 대접하고 사랑을 받았다. 선생의 요청으로 차녀 재명(在明)이가 사적으로 “

양딸”이 되었다.



상해임시정부 신구청사



김구 경무국장

- 여러 할머니들 (곽낙원 (백범 모친), 조마리아 (안중근 모친), 조상섭목사 모친 등)을 보살폈고, 또 조선 유학생들을 도왔다.
- 상해에 있는 동안 세 자녀 양육하며 <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활약했다.

상해서 가까이 모셨던 어른들:



백범 김구선생.



도산 안창호선생.



몽양 여운형선생

5. 영국전차회사와의 대결과 승리 (1926)

● 1926년 4월 17일 남편이 상해서 <일본총영사관>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일본기관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직접 관련의혹은 해소되었으나 1920년 8월 3일 평안남도 도청폭파 사건의 의혹으로 조선으로 비밀 강제 송환되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세 아이를 거느린 홀 엄마가 되었다.



상해 거리 풍경

● 주권이 없는 일본 속국 망명자로 무시하여 납치에 협조한 <영국전차회사>를 상대하여 5개월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였다. 세 자녀와 함께 회사 본사에 가서 자폭하는 위협으로 싸웠다.



남편은 영국전차회사 검표원이었다.

- 그 과정에 해고 위협을 받은 조선 종업원 (인스펙터) 70명을 격려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싸우도록 자문하였다.
- 사생 결단하고 싸워 종래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다. (1) 사과문, (2) 보상금, (3) 조선 종업원 (전차 인스펙터) 무해고와 밀린 임금 즉시 지불 등의 약속 (신사협정)을 받고 9월에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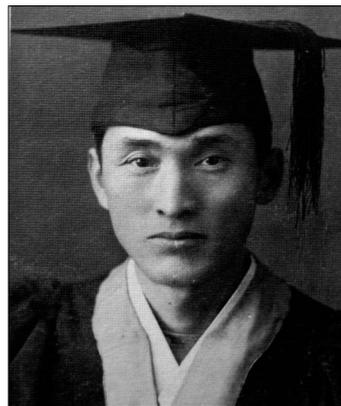
6. 미결수와 가족책임, 그리고 법정 투쟁 (1926-1945)

- 평양 암정감옥에서 20개월간 미결수로 복역하는 남편 (고백을 받기 위한 일경의 긴 고문의 시기)의 차입 비용과 세 자녀 양육을 위하여 매일 고무공장 숙련공으로 혹사했다.
- 맹렬한 법적투쟁을 통하여 남편 구형 15년에서 징역 3년 언도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여러 번의 공판과 3년 징역 후 가출옥하는 남편

- 남편의 가석방 (1928년 12월 2일) 이후에도, 신학공부 하는 7년 동안 (1931년 4월 2일-1938년 3월 16일)에도, 작은 시골교회를 7번이나 옮기며 목회하는 동안 (1932년 7월-1944년)에도 일제당국의 탄압과 극도의 빈곤으로 수난을 당하였다.



여섯 아이의 아버지 (40세) 신학교 졸업하다

- 남편의 잦은 예비검속과 신사참배 반대에 따른 탄압 때문에 1942년 가을에 8식구가 만주로 이주하였다.

7. 해방정국, 김구선생 서거 (1945-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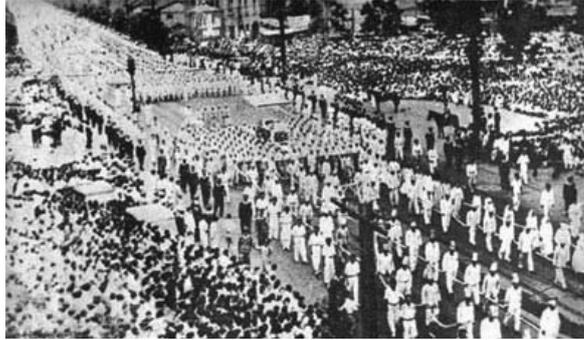


50대의 김예진목사

- 1945년 8월 15일 만주에서 해방을 맞아 남편이 혼자서 서울로 온 후, 세 번에 걸쳐 모든 자녀들을 만주에서 서울로 데려왔다.
- 1946년 봄부터 남편이 개척한 <후암교회> 초대목사 사모로 봉사하였다.

- 1946년-1949년 사이에 북에서 피난 온 친척과 친구가족들 (총 11가족)을 집에 수용하여 남한에서 정착하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 1949년 6월 26일 백범선생 서거 즉시 경교장으로 가서 응급한 일을 도왔다. 10일간 추도기간 전국 서 경교장으로 온 조객들에게 음식접대를 하였다. (차녀는 “양녀”로 애도하였다).



25년 만에 다시 백범선생의 “딸”이 된 재명 (도신의 차녀)

8. 한국동란과 남편의 순교, 자녀양육 (1950-1961)



비슷한 암매장 시체 발굴 장면

- 한국동란 시 남편이 서울 근교에서 북한 보안서원들에게 체포, 회유, 고문, 총살 (8월 10일)당하였다 (순교). 시체를 찾기 위하여 암매장지를 찾아 고생하였다. 남편을 죽인 공산당을 증오하기보다 차라리 일제 식민지 유산인 분단, 그로 인한 이념갈등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통탄하고 슬퍼 했다.



무엇에 든지 열성으로 봉사한 한도신

- 이에 따라 미혼 자녀들을 돌보며 미망인 봉제협동조합으로 생활유지하고 집을 팔아 모두 고등교육을 마치도록 도왔다.

- 1950-60년대에 <삼일동지회>와 <대한애국부인회> 서울지부에 가입활동 하였다.

- 후손 없는 (무의탁)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찾아 돌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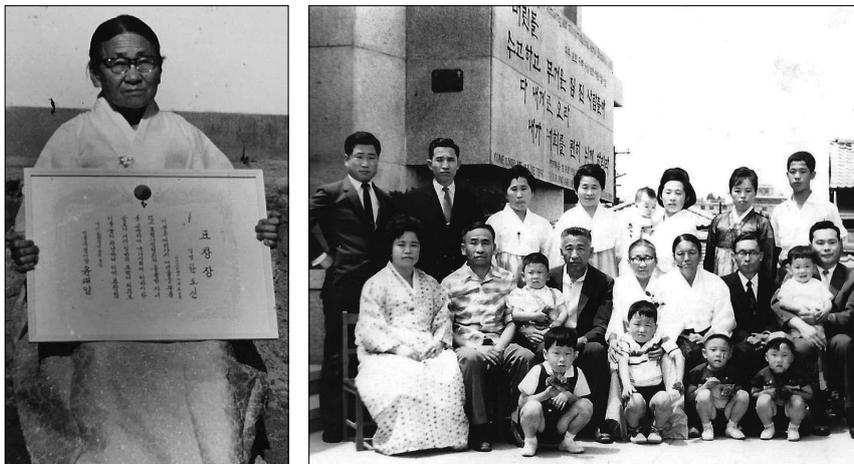
9. 남편의 건국공로훈장, 모범어머니상 수상 (1962-1986)

- 1962년 3월 1일 남편에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추서하였다. (1966년 5월 18일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에 영령 안치했다).



건국공로훈장증과 훈장을 받은 한도신

- 1963년 5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모범어머니상> 수상했다. (6 자녀 중 4 미혼자녀 고등교육 수료 (3명 대학원); 5자녀 장교, 사병, 군속으로 군복무).
- 1963년 10월 4일 후암교회에서 순교자 김예진 초대목사를 기념하는 거대한 머릿돌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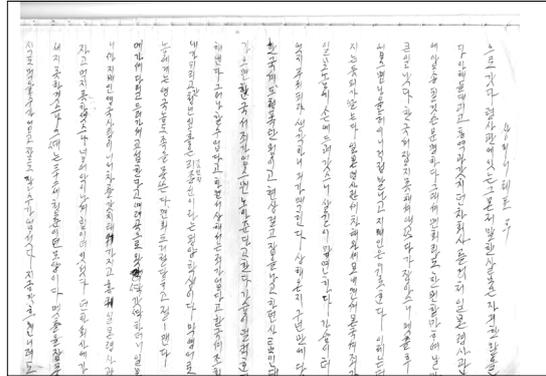
서울시로부터 모범어머니상을 받다.

후암교회에 남편의 기념 머릿돌을 세우다.

- 1968년 이후 도미하여 나성 <국민회> 여성부에 참여하였다.
- 1962년부터 약 15년간 육필로 회고록 (원고지 1,200매 분량)을 쓰고 약 20개의 녹음 테이프와 30여 년간의 일기를 남겼다. (후일 회고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회고록을 집필하는 모습



원고 필체

- 1986년 2월 19일 향년 92세로 미국 나성에서 별세하여 미국 나성근교 로즈힐 공원에 영면하게 되었다. 나라사랑의 가시밭길을 힘들게 걸어가신 나의 어머니를 아무도 “항일독립운동가”라 생각지 않았고 “애국지사의 아내”라 불렀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의 어머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자녀가 참석한 장례식 장면

10. 후기

- “나는 어렸을 때 두 개의 큰 산맥을 보고 자랐다. 하나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이고, 또 하나는 남편의 멀고 먼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한평생 활랑거리는 가슴으로 살아온 어머니이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니



80대 한도신

의 산맥이 아버지의 것보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역사는 앞에서 이끄는 자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의 살아온 길을 정리하면서 우리 역사의 골짜기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아낙네들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한도신 회고록의 머리말 중에서, 1996년 2월).

● 나는 나의 아버지가 위대한 애국투사이고 충성된 기독교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를 그런 인물로 만든 이는 뒤에서, 옆에서, 그리고 멀리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돌보아준 어머니 덕이라고 믿는다. 어머니의 지혜롭고 담대하고 헌신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는 우리 독립운동사 별로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어머니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강인한 믿음이 있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친일파, 사대주의, 분단세력이 판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굶힘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과 열정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위대한 신앙적 유산이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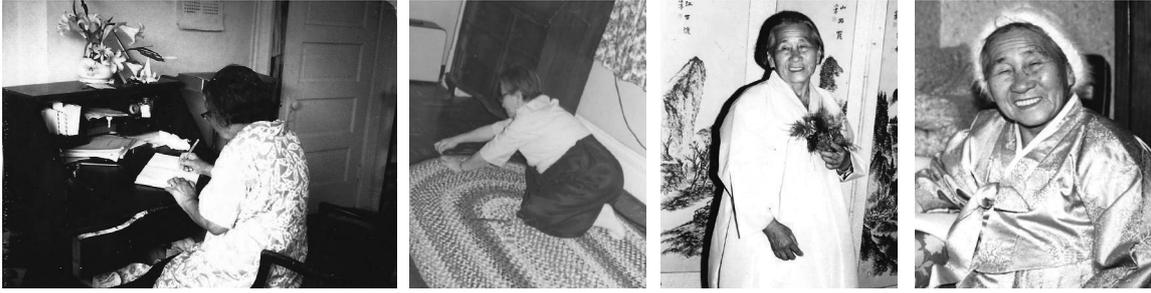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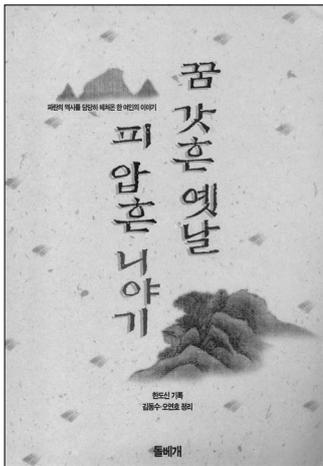
● 나의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늘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갔다. 그리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였다.

● 한도신 회고록 (김동수, 오연호 정리) 『꿈 갖은 옛날 피 압흔 이야기』 (1996년 2월 23일, 돌베개). 동 회고록 재출판 (2016년 10월 7일, 민족문제연구소). 김예진과 한도신의 영문 전기 To Live for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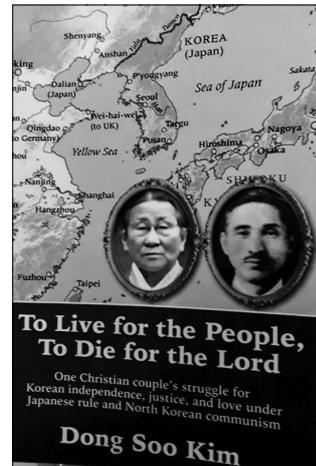
People, To Die for the Lord (The Oaklea Press, 2018).



한도신의 생활모습 - 70대 80대



어머니의 회고록



어머니, 아버지의 전기 (영문)

만주 항일 무장독립군의 어머니 김성녀

최성주 공동대표_ 언론개혁시민연대

만주 항일 무장독립군의 어머니 김성녀

김성녀는 189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부친 金正彦과 모친 金玉姬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1907년 항일 무장독립투사 최운산 장군(건국훈장 애족장 수훈)과 혼인하였다. 최운산은 왕청현 총대總代(총판總辦)로 복무하면서 봉오동과 주변 지역인 도문, 석현, 대항구, 양수천자, 서대파를 비롯해 북간도 지역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였고, 축산과 곡물 등으로 러시아와 대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무역상이기도 했다. 또한 산업화가 빨랐던 연변지역에서 국수공장, 콩기름공장, 양조공장, 성냥공장, 비누공장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 공장을 운영하는 간도 제1의 거부였다. 최운산 장군은 이 모든 재산을 1910년~1945년 사이의 만주지역 항일 무장독립전쟁의 군자금으로 완전하게 소모하여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주역이다. 최운산 장군과의 혼인으로 김성녀 여사의 일생은 항일 무장투쟁의 가장 중심에서 독립군의 의식주를 해결한 충실한 배후 세력이 된다.

1. 김성녀 최운산 부부의 봉오동 이주

김성녀 여사와 최운산 장군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무장 독립군기지 건설이라는 큰 뜻을 품고 4대가 함께 연길에서 봉오동으로 이주하였다. 황무지인 봉오동 일대를 개간하여 마을을 건설한 것이다. 신한촌으로 불렸던 봉오동은 물이 맑고 토질이 좋아 많은 조선인들이 꿈을 가지고 이주해온 곳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아래 마을 입구의 십자로는 연길, 도문, 훈춘으로 가는 길목이고, 이 하촌의 입구에서 15리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산 밑에 연병장과 군사학교, 독립군의 막사가 있던 상촌과 <대한북로독군부>의 본부이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저택이 있던 중촌 마을이 있고 마을 뒷산의 정상을 지나면 양 갈래로 갈라지는 도로는 연해주와 북만으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산 아래 마을 하촌에서 차로 10분만 가면 두만강이 있어 국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봉오동은 여느 시골마을과 달리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충지였다.

최운산 장군은 중국군에 근무할 때 장작림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는 등 당시 동삼성지역의 지배세력인 장작림 군벌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다. 당시 간도는 비적들이 횡행하던 때라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사병을 배치하는 일이 많았다. 최운산 장군이 비적들로부터 조선인들의 안위를 보살피겠다는 명목으로 사병 부대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신뢰가 컸던 장작림은 중국군에서 병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최운산 장군을 따라 나온 병사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으나 소수의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912년부터 봉오동에 100명이 넘는 사병부대가 최운산 장군의 사비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 자위대가 독립군 부대의 모체가 된다. 김성녀 여사는 자위대 시절부터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졌고 군복을 지어 입히면서 부대원들의 생활을 돌보기 시작했다. 봉오동에서 대규모 무장군대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일합방 이후 독립군이 되기 위해 국내와 간도 전역에서 봉오동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났다. 뛰어난 무술실력과 총포술로 중국군에서도 군사훈련을 지도했던 최운산 장군은 '봉오동사관학교'를 열어 그들을 모두 정예 군인으로 훈련 양성하였다. 독립군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위대는 자연스럽게 독립군부대 <도독부>로 발전하였다.

2. 봉오동 독립군기지 건설에 헌신하다

1915년이 되자 봉오동으로 모여든 독립군의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김성녀 여사의 일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기쁘게 받아들였다. 최운산 장군과 김성녀 여사는 그들을 모두 수용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부대원들과 함께 봉오동 산중턱의 나무를 벌목하고 개간하여 넓은 연병장을 만들었다. 수백 명으로 들어난 독립군들이 묵을 대형 막사도 3개 동을 지었다. 그리고 독립군 본부인 자택 둘레에 3000평 규모의 토성을 건축하였다. 김성녀 여사는 토성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진흙과 짚을 섞은 흙으로 기초를 쌓고 말이 커다란 연자 맷돌을 끌면서 다진 후 그 위에 다시 짚과 흙을 엮는 방식으로 켜켜이 쌓아올렸다고 설명하였다. 폭이 1m도 넘는 커다란 토성은 웬만한 포탄에도 부서지지 정도의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토성으로 경계 지어진 장원의 사방에 포대를 쌓고 4대의 대포를 각각 배치하였다. 봉오동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독립군기지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

게 체계적으로 무장독립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봉오동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의 본부가 되어 수천 명에 이르는 독립군이 봉오동 주변에 주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장독립운동사』의 저자 이강훈은 “일찍이 정착하여 생활기반을 굳혀 놓고 그 토대 위에서 **독립 전쟁의 장비며 군량 등을 보급하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한 최진동의 동생 최운산과 최치흥 등 3형제의 업적은 봉오동전투 등을 비롯하여 당시(경신년) 대일 항전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중략)...독립군을 편성할 때에 사령부를 봉오동에 설치하기 위하여 **기성 촌락을 군사촌으로 개발한 것은 주로 최진동 동생되는 최운산과 최치흥 형제의 노력의 결과이다.**”¹⁾라고 최운산 장군의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때 독립군기지 건설과 운영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김성녀 여사는 독립군 부대원의 식사 준비와 군복제작 등을 도맡았다.

『한민족독립운동사』는 당시 독립군들이 입었던 군복에 대해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압록강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쥐색 무명구복에 중국 군대식 금장과 견장을 부착하고 중국군대식 군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군복은 한인사회 부녀자들이 제조하였다고 한다.**”²⁾ 고 기록하고 있다. 그 한인사회 부녀자들의 총책임자가 김성녀다. <대한군무도독부>군은 최운산 장군이 자위대를 설립할 때 중국군에서 모집해서 봉오동으로 데려온 사병들이 중국군에서 입었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병사들이 늘어나도 그들과 같은 군복을 지어 입혔다. 김성녀 여사는 1912년 시작된 무장부대 운영부터 이후 대규모 군단을 이루는 9년의 기간 동안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독립군부대의 모든 살림을 담당하면서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군무도독부는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3형제가 왕청현 봉오동을 근거지로 하고 풍부한 경제력을 선용하여, 거의 개인적 힘으로 양성한 수백 명의 사병³⁾을 기간으로 일개 전투군단⁴⁾을 편성하였으며, 최진동 사령관과 그의 동

1) 『무장독립운동사』 이강훈, 서문당, 1975. p84

2) 『현대사자료』 강덕상, p373

3) 최운산장군이 사병부대 <도독부>를 발전시켜 1919년 창설한 670명 규모의 <대한군무도독부>

생들의 참모와 경제적 뒷받침으로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봉오동전투에서 흥적 일본군에게 대 타격을 줌으로써 독립전사에 불후의 이름을 남긴 기관으로 되었다.”... (중략)... “봉오동은 대부분이 새로 지은 번듯한 가옥인데다가 특히 상촌은 도로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곳은 천연적으로 일부당천 만 부부당한 요새로 된 것을 인공을 가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꾸미자는 계획이었다. 마을 한쪽에는 새로 지은 목조 교사가 있었으며, 교사 앞에는 독립군의 연병장이 있었다.”⁵⁾

독립운동가 출신의 역사가 이강훈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운산 장군 형제들의 결단과 노력이 만주 무장 투쟁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남편 최운산 장군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김성녀 여사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대업이 실현되는 조용한 밑거름이 되었다. 최진동과 최운산 형제는 각자 혼인 후에도 분가하지 않았고 봉오동에서도 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최진동 장군의 부인은 순위 동서였으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식구가 많고 규모가 큰 집안 살림을 맡았던 김성녀 여사가 1912년 사병부대 창설 이래로 독립군의 식사 및 군복 그리고 각종 물품 준비에 이르기까지 봉오동 독립군기지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도맡아 하였다. 김성녀 여사가 1969년 작성한 최운산 장군의 독립유공훈장 서훈신청서에 자신을 최진동 장군의 제수이고 최운산의 처이며 최치흥의 형수라고 밝히면서 **“본인이 독립군 창설 시초부터 노령 밀산 망명할 때까지 식사 제공은 물론 부락 부녀자를 동원 독립군에 필수품, 군복을 위시하여 장유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조달에 헌신하였음”**을 설명하고 **“또한 최운산 장군의 부재시 급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의하여 전할 수 없어 주야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본영진지에 연락한 것도 비밀비재했다”**⁶⁾고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4) 3천명 이상의 대군단을 이룬 독립군 통합부대 <대한북로독군부>

5) 『무장독립운동사』 이강훈, 서문당, 1975. p67 p96 p98

6) 「최운산 독립유공자 수훈신청서」, 1969년 보훈처 제출, 건국훈장 독립장 수상자 김보형, 조원세 입증

3. 기미독립선언 참여와 대한민국의 첫 군대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기미독립선언은 간도와 미주지역 등 국내외로 확산되었다. 간도의 유지였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던 최운산 장군 형제들은 간도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김성녀 여사도 일가친척을 비롯한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을 독려하여 대한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최운산 장군 형제들은 3월 26일 애국 열기가 뜨거웠던 길림성 왕청현 일대에서 5천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⁷⁾ 또한 동년 4월 26일 봉오동 일대에서 3천명, 29일에 대감자 일대에서 2천명의 동포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이끌었다.⁸⁾ 서울의 3.1만세 시위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의 장에는 항상 여성들의 참여가 컸다. 각 지역의 만세시위 사진에도 수많은 치맛자락이 펄럭인다. 다만 여성들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을 뿐, 아내들, 어머니들, 딸들은 그 현장에서 다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김성녀 여사도 그랬다. 남편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고, 내 나라의 일이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던 최운산 장군은 1912년 이래로 무장독립전쟁을 위해 훈련 양성해 오던 자신의 자위부대 '도독부'를 모체로 대한민국의 첫 정식 독립군부대, 정예 대원 670명 규모의 <대한군무도독부>를 창설하였다. 김성녀 여사가 1969년 요로에 제출한 진정서⁹⁾에 밝힌 <대한군무도독부>의 무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도독부군은 시초에 670명이 완전히 무장하였으며, 독지가나 의연금 등의 일분의 찬조금 없이 명실 공히 최운산 자신의 사재로서 장비, 피복, 식량 등을 조달 보급한 것이다.(중략).... 당시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대포, 6문

7) 『중국조선족력사연구』 4집 안화춘, 연변인민출판사. p183, p189 "3월26일 왕청현 배초구에서 5천여명의 조선인들이 반일집회를 거행할 때 최진동장군과 박영은 봉오동, 석현, 대감자 일대의 시위군중들을 지휘하여 시위에 참가하여 왕청 일대 반일독립운동의 반일기세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갔다."

8) 『최진동장군』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공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중국조선족력사연구』 4집 안화춘, 연변인민출판사. p183 p189

9) 이 진정서는 국민회군의 활약을 기록한 「항일국민회군」이라는 책에 참고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1969년 요로에 제출했다는 이 진정서는 역사가들에게 사료로 역사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운산장군의 후손들은 이 진정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나 2015년 가을 도서관에서 발견하였다.

2. 장총, 500여정 3. 권총, 수십 정 4. 실탄, 수만 발 5. 수류탄, 수백 개... ”

1919년 만주지역에 최초의 대한민국의 무장독립군부대 <대한군무도독부(大韓軍務都督府)>가 창설되면서 최운산 장군 형제의 저택이 그대로 <대한군무도독부>의 본부가 된 것이다. 최운산 장군의 부하와 동지들은 당연히 도독부군을 창설하고 지휘하던 최운산 장군이 사령관이 되리라 생각했으나 최운산 장군은 이를 사양하고 중국 보위단 고위 간부이며 광복단 초대 단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형 최진동 장군을 사령관으로 추대하고 본인은 참모장으로 군대 운영의 전반을 책임졌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국내진공작전 등 전투에도 직접 참가하면서 전투 역량을 담보하였다. 셋째인 최치흥도 중국 보위단 간부를 사직하고 본격적으로 형님들과 함께 <대한군무도독부>의 참모이며 전략가로서 활약하면서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3형제는 혼연일체가 되어 독립군부대 운영에 투신하기 시작했다.

최진동 3형제는 평소에도 정말 의가 좋았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한 맹세를 하나둘 실천에 옮길 때도 아무런 망설임도 두려움이 없었다. 특히 둘째인 최운산 장군은 모든 일의 중심에 형님인 최진동 장군을 두고 항상 존중하면서 활동했다. 이러한 형님에 대한 지극한 배려에 대해 아내인 김성녀 여사는 가끔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일생동안 남편의 적극적인 동반자로 활동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겨 적극 동참하던 김성녀 여사지만 남편이 자신의 재산으로 외부에 군자금이나 기부금을 보내는 일을 비롯한 외부활동을 매번 형님인 최진동 장군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김성녀 여사는 가끔 이 문제로 남편에게 의의를 제기했다. 그럴 때마다 최운산 장군은 허허 하고 웃으며 “내 일과 형님의 일이 다르지 않고 모두 대한 독립을 위한 일ियो. 나는 아무래도 좋소!” 하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부인 김성녀 여사를 달랬다고 한다.

<대한군무도독부> 소속의 670여 명의 독립군은 1912년 이래 오랜 기간 훈련 양성된 정예 부대원들이었으나 그 규모의 병력만으로는 당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

하는 일본 정규군과의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최운산 장군은 간도의 모든 독립군을 만나 대규모 군단을 이루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였다. 3.1 독립선언 이후 독립군이 되려고 간도로 넘어오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이미 군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부대도 있었다. 최운산 장군은 모든 부대에 무기와 식량 등 필요한 군자금 일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¹⁰⁾ 이에 응답한 여러 부대가 봉오동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여러 번의 회동을 거쳐 1920년 5월 19일 3000명에 이르는 연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게 된다. 홍범도장군, 김좌진장군도 <대한북로독군부>에 합류하여 각각 연대장으로 활약했다.

물론 각기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독립군부대가 통합을 이루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수차례의 회의 끝에 1920년 5월 3일 국민회·군정서·신민회·군무도독부·광복단·의군단의 6개 단체 대표들이 봉오동에서 회의를 열고 18개항의 협의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재북간도각기관협의회서약서」¹¹⁾를 발표한 날짜가 **대한민국 2**

10) 『한민족독립운동사』 4 독립전쟁 p96 국사편찬위원회. ; 「최운산 독립유공자 수훈신청서」 1969년 보훈처 제출, 건국훈장 독립장 수상자 김보형, 조원세 입증.

11) 「재북간도각기관협의회서약서在北墾島各機關協議會誓約書」

본협의회는 북간도각기관의 정신통일과 사업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을 체결한다.

- ① 본협의회에 참가한 신민단·군정서·도독부·광복단·국민회·의군단은 5월 11일 음력 3월 23일에 모연대를 소환한다.
- ② 각기관내 군적軍籍에 등록된 군인은 상호강제로 편입할 수 없게 한다.
- ③ 차후로는 지방기관설립과 인원모집은 민의에 따른다.
- ④ 각 기관은 모금이 필요할 시에는 협의회 의결에 의한다.
- ⑤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이 쌍방 암의領意로 연합할 시는 협의회에서 찬성한다.
- ⑥ 각 기관의 지방기관에 대하여 상호 침해할 수 없다.
- ⑦ 자단체自團體의 통신기관에 대하여는 물론 각 단체의 통신을 급속, 신실하게 전달한다.
- ⑧ 각 단체의 어느 기관을 불문하고 경보警報있을 시는 협력 구원한다.
- ⑨ 사업 진행상의 비시卑劣기관의 능력으로 처결할 수 없을 시는 협의회에 제출한다.
- ⑩ 금일 회의에 내참來參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상호 성의로 권고하여 본회에 참가한다.
- ⑪ 협의회기관보를 발행한다.
- ⑫ 매월 1일·15일을 협의회정기회기로 정한다.
- ⑬ 특별사항이 있을 시에 2개 기관 이상이 동의하면 특별회를 개최한다.
- ⑭ 협의회의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2인씩 매차每次파견한다.
- ⑮ 결缺
- ⑯ 일후日後긴요사정에 의하여 위의 제반조건은 협의회 의결로 증산增刪할 수 있다.
- ⑰ 이상 조약에 위반하는 기관이 있을 시는 2차 권고로 반성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쓴다.
- ⑱ 위 서약 기일은 오는 11일로 한다.

대한민국2년 5월 일

신민단 대표 김준근·이흥수, 군정서 대표 나중소·김좌진, 군무도독부 대표 [최]진동·이춘범
광복단 대표 전성륜·홍두극, 국민회 대표 김병흡·김규찬, 의군부 대표 김종헌·박재눌

년, 5월11이다. 그 후 더 많은 논의를 거쳐 5월 19일 통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 성립 誓約書」¹²⁾가 조인되었다.

만주의 독립군들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독립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들이 원하는 독립된 나라는 군신의 나라 조선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주창한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한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하겠다는 의지, 그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봉오동에 결집한 <대한북로독군부>는 명실상부한 대 군단이 되었다. 상해의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전쟁을 천명하며 1920년(대한민국 2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최운산 장군이 자신의 저택에 <대한북로독군부>의 사령부가 마련되었다. 김성녀 여사는 마을의 부녀자들을 총동원하여 수천명에 이르는 독립군의 식사는 물론 군복¹³⁾을 위시하여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를 비롯한 모든 식자재를 부대별로 공급하는 등 독립군 연합사령부의 살림을 총괄하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항일 독립전쟁 준비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사령부였던 저택 안에는 대형 비둘기집이 있었고 약 300마리의 비둘기를 길렀다. 당시 비둘기와 매는 먼 지역에 소식을 전달하는 중요 통신도구였다. 모이를 주고 비둘기들을 관리하는 사육사가 있었지만 김성녀 여사는 비둘기 사료도 정성을 기울여 준비해주었다.

12) 일제 기밀문서 143호「誓約書」

我兩機關은 민족정신의 통일과 軍務勢力的 확장을 讓하기 謨[?]하기 위하여 永久合一할 것을 확실히 서약한다.

- 국민회의 군무위원회와 군무도독부의 명칭을 취소하여 기관을 통합하여 大韓北路督軍部라고 개칭한다.

- 국민회는 행정기관, 대한북로독군부는 군사기관으로 하여 사무를 각각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국민회는 대한북로독군부를 보조하고 일체 군무를 籌備할 것.

- 前 대한군무도독부의 지방기관인 地方局은 국민회에 귀속할 것.

- 위 서약은 양 기관 대표 날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2년 5월 19일.

전 대한군무도독군부 대표 최진동, 대한국민회 대표 김병흡, 군무위원 대표 안무

13)“당시 연길도윤이 파견한 조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군무도독부) 병력은 약 400명, 기관총 2정, 런발총 355자루, 3.8식총 13자루, 30식보총 28자루..... 병사들의 보강은 상하가 누른색이고 모자는 누른색 다각모에 태극휘장을 달았으며 레복에는 매화형 금성이 박힌 견장을 달고 헌병대는 오른쪽 옷설에 검은색 흉장을 달았다. 그리고 장교들은 모자와 견장에다 금줄을 띠웠다'고 기록하였다.” 『최진동장군』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공저, p88~89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4.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승리와 김성녀

1912년 이래로 체계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한 최운산 장군의 헌신과 노력으로 봉오동은 대규모 연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가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되었다. 2012년부터 무장군인으로 훈련된 정예부대 <대한군무도독부>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독립군 부대가 합류하여 산과 계곡을 따라 봉오동 주위에 주둔한 독립군의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 3개의 연대와 1개 후방부대, 의무부대, 보급부대 등 <대한북로독군부>는 전쟁에 대비하여 정규군의 편제로 조직되었다. 대군단을 이룬 우리 독립군들은 때를 기다리며 훈련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령(會寧)·종성(鐘城)·온성(穩城)·경원 등 두만강 연안의 일본헌병대를 습격하는 국내진공 작전을 자주 전개하였다. 전투 경험이 많은 <대한군무도독부>군이 주로 습격전에 참가했는데 최운산 장군이 직접 부대원을 이끌었던 1920년 3월 온성헌병대 습격전에서 올린 전과는 그 내용이 일본군의 전투상보에 “독립군이 맹렬히 사격한 탄환은 전화선에 명중, 단선되어 통화불능의 상황에 떨어졌으므로 일시 경찰, 헌병의 전멸을 의심케 하였다.”¹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성녀 여사는 최운산장군의 사격술에 대한 몇몇 일화를 후손들에게 직접 증언하였다. 어느날 그녀가 마당에 있을 때 독수리가 날아와 마당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닭을 낚아채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방안에 있던 최운산 장군이 방문을 열고 뛰어나와 그것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장총을 들고 나와서 멀리 날아가고 있던 독수리를 쏘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봉오동전투 전에 온성헌병대 습격전에서 전화선을 끊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마치 전설처럼 후손들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최운산 장군의 사격술에 대한 일화가 일제의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역사학자 반병률과 강덕상은 “만주지역의 항일독립군단체들은 3·1운동 이후 축적된 무장력을 바탕으로 1920년에 들어와서 활발한 국내진공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상해의『독립신문』은 1920년 3월부터 6월까지 독립군의 기습대와 전령대가

14) 고경12537호(4.28):4.美占洞 十八日午前五時五十分長德洞及月坡,豊橋洞=侵襲...猛射セル彈丸ハ電話線=命中斷線シ通話不能=陥リシ爲一時警察憲兵ノ全滅ヲ疑...

협동하여 도강하여 벌인 소전투가 총 32회에 달했고, 일본 순경대정탐을 격살하고 일본관서와 순사파출소를 파괴한 것이 34개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관헌은 북간도의 독립군단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무력침격을 감행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 최명록부대(대한군무도독무)가 1920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무려 36회에 걸쳐 국경의 증성군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국내진입작전은 1920년 3월까지 수십 차례 계속되었으며, 적측을 당황하게 하고 독립을 열망하는 국내 민심을 크게 고무시켰다.”¹⁵⁾고 평가하고 있다.

1920년 6월까지 독립군이 두만강을 건너 수시로 일본군 국경수비대와 헌병대를 습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봉오동으로 간도의 독립군들이 모두 모여들자 일본군은 남양(南陽)수비대 및 19사단 등 대규모 병력을 만주에 파견하여 중국 영토 안에서 독립군을 토벌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첩보를 통해 '독립군대토벌계획'이란 일본군의 작전을 사전에 파악한 최운산 장군 형제들은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한 달 전부터 <대한북로독군부>군을 연대별로 봉오동을 둘러싼 각 산 정상에 주둔케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여 봉오동(鳳梧洞)에서 적의 대부대를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뒀으니 이것이 국내외에 '독립전쟁 제1회전'으로 회자되며 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햇불로 전해지고 있는 '봉오동전투'이다. '봉오동전투'는 일본 정규군과 벌인 최초의 대규모 전투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당시 국내외 동포들에게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었던 독립전쟁이다. 우리 독립군들의 목숨을 건 독립의지와 그에 맞갖은 군사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쟁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 무력투쟁의 길을 걷기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난 수많은 애국청년들¹⁶⁾을 체계적으로 훈련 양성하여 무장역량을 강화해온 최운산장군의 오랜 준비와 동반자인 김성녀 여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현장을 지킨 김성녀 여사가 기록한 독립군 통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의 조직과 봉오동전투의 전황은 다음과 같다.

15)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49권』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반병률, 2009; 미촌수수·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8, 708쪽.

16) 「回想記(俄領과 中領에서 進行되던 朝鮮民族解放運動)」 中 수청第一빨치산軍隊 高尚俊의 回想記. 1958년 “1919년 9월 次에 海三(블라디보스토크)에 당도하여서...당시 김규면·김경천·장기영 등 동지들은 왕청 봉우골 사관학교로 가다가 中路에서 討伐隊를 만나서 재피거우로 왔다.”

개편 후의 북로독군부 조직

총재 겸 사령관 최진동

부관 안무

참모장 최운산

참모 최치흥(일명 명순)

참모 이태범

의무원장 박영

특별부대장 이원

제1연대장 김좌진

제2연대장 홍범도

제3연대장 오하목

 대대장 최태례

 대대장 최도례

제1중대장 이천오

제2중대장 강상모

제3중대장 강시범

제4중대장 조권식

통합 후 장비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포 10여 문, 2. 기관총 수십 정, 3. 장총 천여 정, 4. 권총 수백 정,
5. 수류탄 수천 개, 6. 실탄 수만 발, 7. 병력 수는 수천에 달하였고 군복은 중국 군인복과 동일하였다.

봉오동 전투 전황戰況

봉오동전투는 일본군 국경수비대가 봉오동을 독립군의 책원지策源地라 하여 격멸擊滅코저 하다가 도리어 그들이 대패한 전투였다.

서기 1920년 5월 중순 일본군 신미이랑이 지휘하는 남양수비대 및 안천소좌가 지휘하는 제19사단 일부 약 1개 연대 병력이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군의 본거지인 독립군을 내격來擊한다는 정보를 미리 탐지하고, 독군부 사령부에서는 봉오동 주민을 미리 전부 대비시키고 사령관 최진동 장군을 위시한 참모들과 특별부대인 이원부대는 사령관 본부를 봉오동 상위에 있는 봉초봉에 위치하고, 제1연대 연대장 김좌진 장군은 봉오동 서쪽에 위치해 있는 초모정자산에 연대본부를 두고, 제2연대장 홍범도 장군은 남봉오산정에 연대본부를 두고 제3연대 연대장 오하목은 사령본부 후방인 장골에 예비부대로 연대본부를 두고 위치해서 적군이 진입예상에 각각 매복 부대를 배치하고 있던 중 1920년 6월 7일 새벽을 기해서 일본군이 봉오동을 기습해왔다. 독립군은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사방에서 완전 포위하여 적군을 대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다음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 적군 射殺 500여명¹⁷⁾, 중상자 700여명, 경상자 1,000여명
- 노획물자는 1. 대포 4정, 기관총 수십 정, 장총 5백여정, 탄환 수만 발에 수류탄 다수를 노획했다.

이상과 같은 전투에서 아군의 피해는 수십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 (중략)¹⁸⁾

일본군은 1920년 7월7일 새벽 6시 30분에 고려령 서편 약 1,500m 고지에 도달하였다. 이때 아군 독립군은 사면에 매복해 있던 전위중대가 접근하기를 기대하여 급반격으로 적의 전위부대를 전멸시켰다.

그 당시 하늘에는 무수한 안개가 덮이고 폭우가 퍼붓고 있었으며, 지형적으로 아군 독립군은 유리하고 적군에게는 아주 불리하므로 미처 응전치 못하고 도리어 아군이 대승했다. 그리고 매복부대는 본대에 귀대했고 적은 비파동을 경유해서 유원진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적은 그곳에서 재정비하여 가지고 다시 同月 同日 오전 11시 30분경 적의 보병부

17) 홍범도일지에도 일본군 사망 5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8) 「항일국민회군」의 편저자가 진정서의 일부분을 생략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대가 봉오동 상촌에 도달하였으나 아군은 더욱 매복하여 잠복부동하니 적의 전위대가 통과하고 그후 적의 本隊가 아군의 매복한 삼면포위 중에 완전 진입한지라, 차제此際에 봉오동 상위하여 사방으로 도주할 때 봉초봉에 위치해 있던 사령관 최진동 장군의 응전(사격개시) 지휘 총성에 의하여서 맹렬히 급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완전 포위되고 不意 습격을 당하여 당황하여 殺傷者 重輕傷者 逃亡者 등으로 혼란 제2중대장 강상모는 적의 후방에 부하 중대원을 인솔하고 맹렬히 진격하여 적군 십여명을 사살하고 基地點에 부하 중대원을 매복시켰다가 적의 지원부대(本隊)에 약 1,000발의 사격을 가하여 교묘히 적진을 돌파하여 아군부대로 귀대했다.

일본군은 불순한 日氣와 폭우로 인하여 彼我를 分別할 수 없는 관계로 양편에서 진입하던 일본군을 서로 난사하여 독립군을 사살하려다가 적은 많은 살상자를 내게 됨에 따라 적은 대패하였고, 苦千은 온성 유원진으로 행하여 패주 퇴각하고 말았다.

최운산 장군은 봉오동전투 당시 전문 사진사로 하여금 봉오동전투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했다. 종군기자라 할 수 있는 사진사가 목숨을 걸고 승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진을 임시정부로 보내어 전승의 소식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라는 전문이 남아있다.

“봉오동전쟁 전황 촬영 사진 3매, 상해로 보낼 예정,

별지 전쟁 촬영 사진3매는 제2 남지방의 박준재씨가 전쟁 당시 실시 전황을 보고 촬영한 것이다. 이것은 임시정부로 보내서 석판으로 인쇄하여 세계에 선전하려는 것인데 보신 뒤에 반송하기 바람”¹⁹⁾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대 <대한북로독군부>의 소중한 역사적인 기록이므로 승전보를 세계에 알리는 석판작업을 한 후 도로 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상해 임시정부로 보낸 이 3장의 봉오동전쟁 장면 사진은 어디에선가 유실되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다. 단지 국민회군이 가지고 있던 문서에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너무

19)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國外情報 : 支那 官憲과 不逞鮮人團과의 關係 및 그 외의 件, 高警 第190號, 국민회공문; 독군부 오진동-->국민회

나 안타까운 일이다. 봉오동전투에 관한 신문 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기록에서 봉오동전쟁 당시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김성녀 여사는 당시 아군의 사상자도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사망자만 수십 명에 이르렀고 부상자도 수십 명이었다. 의무부대가 총상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자에 비해 의사가 부족해 애를 태웠다. <대한북로독군부> 지휘부는 시급을 요하는 총상치료를 위해 용정 제창병원의 구정서라는 이름의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²⁰⁾

한편 최운산 장군 또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봉오동전쟁에서 대패한 일본군이 이를 설욕하기 위해 대규모의 부대 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탐지하고 총사령관인 최진동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지휘부의 대장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했다.²¹⁾ 봉오동전투 후에도 독립군들이 계속 봉오동으로 모여들었다. 러시아에 있던 독립군을 제외하고도 봉오동과 서대파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독립군은 3천명²²⁾이 넘었다. 그러나 지휘부는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을 피하고 군대를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청산리전투 후 독립군들은 연해주로 빠르게 이전하였다. 최운산 장군의 형제들이 모두 연해주로 이동을 결정하자 김성녀 여사는 담대하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연로한 시부모님과 남은 가족들을 보살피며 지냈다.

5. 경신참변과 김성녀

청산리전투에서도 대패한 일제는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열기를 소멸시키기 위해 독립군을 도와준 민간인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 야만적인 '경신참변'때 일제는 독립군본부였던 최운산 장군의 저택을 모두 불태우고 배우자인 김성녀와 가족들에 대해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였다²³⁾. 그러나 최운산 장군의 가족들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

20) 국공收7.9: 7.6독군부 이원 ->구춘선: 봉오동전쟁 부상자 치료 위해 의사 요청-제창병원 의사 구정서 등

21) 고경23792호: 6/30일 지방대표회의, 7/1일 알야하 장동에서 군정서 제외 연합회의, 7일 구룡평 연합회의 上海臨時政府ノ訓令ニヨリ「何團タルヲ問ハス統一方針ニ反對スル團體ハ之ヲ攻撃破壞スヘシ」, 13~15일 윤계동간부회의 군정서 간부 參加シタルヤ否ヤハ疑問

22); p129~ 각 단의 명칭을 폐하여 동도군정서 동도독군부라는 행정 군무 2대 기관을 설치하고 마침내 한 명령 밑에 행동하기로 되어 병력은 약3천에 이른다고 한다./

였기에 아무도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발설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산속으로 피신했던 가족들은 이후 오랫동안 월정사²⁴⁾에서 숨어 지냈다. 1912년 이래로 독립군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모두 김성녀 여사의 몫이었다. 최진동 장군의 부인은 원래 병약하여 독립군 살림에 관여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진동 장군이 독립군 부대를 인솔해 연해주로 떠나자 혼자 남은 것을 고통스러워하다 병이 더 깊어졌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사망하였다. 당시 최진동 장군은 모두 3남 2녀로 막내아들이 두 살이었다. 김성녀 여사는 동서가 사망하자 자신의 두 딸과 조카 5남매와 노년의 시부모님을 돌보면서 가장들이 돌아올 때까지 곳곳하게 집안을 지켰다.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형제들은 자유시참변을 부하들을 1/3 이상을 잃는 등 시대적 격변을 겪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제에 대한 항일의 의지를 불태우며 독립군을 결집하여 연해주와 북만주 지역에 다시 사관학교²⁵⁾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북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김성녀 여사는 남편을 뜻에 따라 최운산 장군 소유의 땅을 계속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전쟁 중에 사망한 독립군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전달했다.²⁶⁾ 당시 독립군의 활약이 신문을 통해 국내에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지면서 북간도에 있는 독립군은 대한민국 독립의 희망이 되었다. 다음은 그 당시 동아일보 기사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북간도와 아령(러시아) 방면 근처에 근거를 둔 독립당 최진동이 거느린 다수의 부하가 무기를 가지고 그 세력이 매우 굳세다 한다. 중국 관헌 간에서도 매우 염려하고 있다. 동녕현 지사가 조사하여 길림성 성장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최진동의 부하는 4,199명이며 장총이 4,059개 이며 기관총이 27개이며 대포가 4개라고 한다.”(동아일보 1924.1.14.일자)

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2 機密 제265호 문서제목 齋藤大佐情報 발신일 1920년 10월06일 사건 : 崔振東 討伐계획, 崔振東의 가족을 포로, 孟(司令)탄핵의 진보 예정.

24) 월정사가 어디에 위치한 절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황무지 봉오동에 신한촌을 건설한 최운산 장군이 가족과 주민들을 위해 이 절을 지어 봉헌하고 운영을 지원하였으리라 추정한다.

25) 『최진동장군』 p203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공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일제문서 機密 제472호 <불령선인단근거지 이동 및 조직변경에 관한 건>

26) 국공7.27: 임국정,나일,한상호,윤준희 앞, 귀댁에서 금옥과 같은 가족을 철창에 두고..... 우리 민족 일반이 동정의 눈물을 흐리고 있음은...위문금 1백원을 보내니....

이렇게 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최운산 장군은 1930년대에도 우수리강 전투, 나자구전투, 대황구전투, 도문대안전투, 안산리전투, 대전자령전투 등에 참전하면서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이후 중국에 대한 일제의 지배가 공고해지고 독립군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1940년대 초반에도 최운산 장군 휘하에는 오백여 명의 독립군들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삼림지역(대황구)에 주둔하고 있었다. 최운산 장군은 집을 떠나 삼림에 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다.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가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밤에 잠깐씩만 들렀다고 기억한다. 비록 자주 집을 비우는 독립군 지도자였지만 유달리 부부애가 좋았던 김성녀 여사는 거의 남편의 부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항상 일체감 속에서 동행했다. 이러한 김성녀 여사의 당당한 행보에는 남편 최운산 장군의 여성관이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최운산 장군은 평소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자식들 앞에서 자주 피력하곤 했다. 어머니가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한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운산 장군은 아내인 김성녀 여사가 집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없이 배려하곤 했다. “사내아 이들은 소 궁둥이를 때리면서 키워도 괜찮지만 딸들은 책상 앞에서 키워야 한다.”는 최운산 장군의 말씀을 후손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일본으로 도망가서 유학을 시작한 남동생 봉우를 보고 자극을 받은 셋째 딸 옥순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떠났을 때도 그 뜻을 모두 받아주었다. 옥순은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동생과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6. 최운산장군의 투옥과 순국, 그리고 김성녀

최운산 장군은 1905년 이후 40년간 계속되었던 독립운동 기간 내내 가족들도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여러 이름을 사용하면서 철저히 신분을 감추었지만 여러 차례 투옥을 당하기도 했다. 자유시참변을 겪은 우리 독립군들이 북만에 머무르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던 1920년대 중반 중국의 정치상황은 우리 독립군에 더욱 불리해져 갔다. 최운산장군이 봉오동에 독립군부대를 창설하던 1912년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장작림 군벌이 점차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독립군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24년 부대를 떠나 최문무란 이름으로 비밀리에 모연활동을 지휘하던

최운산 장군은 중국 밀정의 신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투옥 당했다. 이외에도 최운산장군은 평생동안 모두 여서 차례 투옥되었으나 모든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 1937년 50대의 최운산 장군이 보천보전투의 배후²⁷⁾로 지목되어 몇 달 간 투옥 당했고 1939년 11월에도 강압적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군자금을 모금했던 불령선인으로 10개월간 수감되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무술인 이었지만 잡혀갈 때마다 심한 고문을 당했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대부분 수레에 실려 오곤 했다. 그러나 최운산 장군은 매번 고문 후유증을 크게 앓아도 강건한 체질을 타고난 탓인지 회복이 빨랐고, 회복되면 곧바로 변장을 하고 다시 무장 투쟁에 뛰어들곤 했다. 고문과 투옥은 그의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항일 정신을 조금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동지이자 아내인 김성녀 여사도 이러한 뜻을 잘 알기에 남편이 투옥 당할 때도 보석금을 마련해 남편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냈고 남편이 돌아오면 고문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폈다. 김성녀 여사의 강하고 담대한 성격은 남편 최운산 장군이 장기간 집을 떠나서 지낼 때나 투옥을 당하는 등 특별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였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집안의 중심이 되어 가족들을 돌보았기에 최운산 장군의 부재 시에도 사망한 독립군 가족들의 생활비를 전달하는 일 등 남편이 평소에 하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처리했다. 또 최운산 장군 형제들이 부하들을 데리고 집을 비울 때 쳐들어온 비적들을 상대로 전투를 지휘하기도 했다. 견고한 토성으로 둘러싸인 집이라 다행히 비적들이 넘어오지 못해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가족 중 부상자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김성녀 여사는 전투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두려움에 움츠러들면 직접 총을 쏘며 격려했고 집안의 평화를 지켜냈다.

김성녀 여사의 당찬 성격은 일본 유학 중 학도병 징집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제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던 아들(최봉우)이 어차피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없다는 판단으로 치사량의 아편 차입을 요구하자 아들의 결심을 지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혼 15년 만에 딸 넷을 낳은 후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눈물로 지새웠지만 어차피 매 맞아 죽게 되리란 판단을 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엄혹했다. 고문을 하다 죽기 직전에 집으로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관행이 있어 아들은 삶과

27) 실제로는 보천부전투의 배후가 아니었다.

죽음의 경계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김성녀 여사는 그날 밤 바로 두만강을 건너 움막에 아들을 숨겼다. 죽을 각오로 먹었던 아편 오히려 치료효과가 있어 장독이 점차 회복된 아들 봉우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유학시절 친구와 결혼한 누이가 살고 있는 평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봉오동을 탈출한 큰아들을 살피러 평양에 갔던 최운산 장군은 갑자기 고문 후유증이 도져서 봉오동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45년 7월 5일 평양에서 순국했다. 뛰어난 무술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일생동안 의를 구하고 조국을 위해 살았다.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동포들을 위해 일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운 시대라 지금은 너희가 모두 고초를 겪고 있지만 내 자식들이 크게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최운산 장군의 순국 한 달 후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다.

7. 평양을 떠나 부산에 정착하다.

평양에 정착한 아들 봉우(鳳羽)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평양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해서 살았으나 김일성 치하의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1. 4후퇴 때 평양을 떠나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를 거쳐 부산에 정착했다. 6. 25 당시 평양의 아들집에서 머물던 김성녀 여사도 아들의 피난길에 동행했다. 전쟁 중이라 두 살배기 손자를 업은 아들부부와 함께 피난보따리를 이고진 채 평양에서 거제도 피난민수용소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전쟁이 끝나면 바로 봉오동으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으로 잠시 떠나온 피난길이었는데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통일을 고대하는 이산가족이 되어 살아야 했다. 김성녀 여사는 봉오동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 그리워했다.²⁸⁾

28) 막내딸 12살, 막내아들 6살에 부모와 헤어져 봉오동에 남아있던 최운산 장군의 어린 자녀들은 공산주의 사회 중국에서 지주의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술한 고초를 겪으며 성장했다. 6.25 때 헤어져 서로 연락이 끊어진 최운산 장군의 자식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서로의 생사를 모른 채 40여 년을 지냈다. 그러던 중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부산에 살던 큰아들 봉우와 연변에 살던 3남매가 재회할 수 있었다. 이후 막내딸과 막내아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으로 들어왔다. 막내딸 계순은 2017년 4월 사망하였고 막내아들 호석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 김성녀 여사는 부산에 살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독립군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했던 대규모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비롯해 봉오동을 개간하던 일, 자위대 창설부터 독립군 부대 창설, 대규모 연합군단 형성, 봉오동·청산리전투 등 최운산장군의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해 손자들에게 자세하게 전해주었다. 각 부대별로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부식을 모두 배급해주었지만 어떤 날은 본인이 한 끼에 3000명 군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고 당시의 고생담을 증언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가족사를 통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한 장면 장면을 매일매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김성녀 여사는 대한민국의 항일 무장 독립전쟁의 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몫을 기꺼이 담당한 윤희유 같은 존재, 여성 독립군이었다.

김성녀 여사가 부산에서 생존하고 있을 때 최운산 장군의 부하였던 독립군이 인사차 방문한 적이 있었다.²⁹⁾ 그는 “우리 독립군에게 밥을 해주시고, 독립군들의 군복을 지어주시고,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독립군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주신 이 분이야말로 훈장을 받으셔야 할 진짜 독립군입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 독립군의 조언으로 최운산장군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고 1961년 1월 건국훈장 서훈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총무처의 담당직원이 서훈을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아들 최봉우는 그 직원에게 주먹을 날렸고, 최운산 장군의 서훈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김성녀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운산 장군 3형제의 삶과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서훈 신청이 계속 보류되고 무작정 세월이 흐르자 1969년 김성녀 여사는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³⁰⁾

29) 길에서 우연히 최운산 장군의 아들 봉우를 알아본 그가 집을 방문하여 김성녀 여사에게 감사인사를 드렸다. 그가 후손들에게 최운산 장군의 재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30) 이 진정서가 「항일국민회군」이란 책에 참고 자료로 들어있다. 저자가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진정서의 내용이 수록된 책을 2015년 10월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다음은 김성녀의 진정서 내용이다.

진정서(김성녀)

“본인은 독군부 총사령관 최진동의 제수이며, 도독부, 독군부의 창설자이며 참모장으로써 모든 군자금을 맡아 조달하였으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진동 장군의 친제인 최운산(일명 만익)의 미망인이며, 도독부 독군부의 지략가이며 작전참모였고, 최진동장군과 최운산의 친제인 최치흥(일명 명순)의 형수되는 사람입니다.

3형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독부 독군부를 창설하여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신 분들의 공적이 사록에 누락 및 오기된 사정을 시정코저 하오며, 물론 독립 운동한 것은 개인의 명예욕에서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은 국민과 후손들에게 최진동 3형제의 혁혁한 독립운동 투쟁사를 사실대로 명백히 밝히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나이다.

1. 최진동 장군은 1963년 3월1일에 독립유공훈장 단장(제374호)을 수여 받았음, 최진동 장군의 공적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및 제4권에서만도 수십 페이지에 달하도록 공적이 수록되어 있으나 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복장이나 중장을 수여받고 있기에 사실을 공명코저 하오며, 모든 공적을 사실과 동일하게 남기고자 하오며 품격의 승격도 원하는 바입니다.
2. 최운산(일명 만익)은 1961년 1월 29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포장으로 결정되었다고 총무처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1968년 2월 12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여 보류되었으며, 1969년 12월 17일에 총무처에 사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적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및 제4권과 공보처 발행 무장독립운동비사 및 대지의 성좌 제1부 망명지대와 애국동지회 발행 한국독립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최치흥(일명 명순)은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회 발행) 및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및 제4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투사이다.

이와 같이 최진동 장군을 위시하여 3형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시었는데, 조국광복을 맞아 독립운동 당시 하급지휘관 및 졸병으로서 생존한 독립인사가 자신의 공적을 과대 선전하기 위하여 허무맹랑한 사실과 왜곡되고 과장된 조작 사실로 인하여 독립운동사에 오점을 남겼으며 일생을 독립운동과 조국광복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총투입하여 투쟁하였으나 공적이, 사록에 수록이 뒤바뀌어져 있기에 반드시 사학가들에 의하여 사실이 입증되리라 보며 독립운동을 하시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양심에 호소코자 합니다.

“가. 북만주 지역에는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으나, 그 단체들이 왜 통합을 하여야 했으며, 통합 후에는 누가 총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통합 후에는 누가 자금을 지원하였는가요?

나. 북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당시 누가 거처와 모든 장비 및 피복, 식량과 모든 군자금을 제공하였는가요?

다. 일본군에서 독립군의 근거지라 하는 왕청현 봉오동 일대와 서대파는 누구의³¹⁾ 소유였는가요?

라. 도독부, 독군부에서 사재를 투입하여 서대파에 군정서검 군사교련소를 창설한 사실을 알고 계시며, 창설 당시 자금은 누가 조달하였는가요?

마. 한국에서 북만주로 독립운동을 위하여 입만 하신 분 중에 누가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셨던가요? 유일한 분으로서는 이시영선생(2대 부통령 취임한 분)이시며, 그 외에는 북만주에 거주하는 교민의 도움으로 지탱하였고, 그 외 자금은 누가 지원하였던가요?”

31) 독립군 연합부대 북로독군부 주둔인 봉오동과 북로군정서 주둔지 서대파, 사관연성소를 세운 십리평 등은 모두 최운산장군 개인의 소유지였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사실의 진부를 가려서 한국독립운동사의 오점을 시정하고, 일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신 최진동장군 3형제의 명예를 위하여 흑백을 가려서 모든 역사의 산 증거에 의하여 사실대로 밝히고자 하여, 여러 사학가 제씨들에게 호소하며, 자에 진정서를 제출하나이다.”

김성녀 여사는 1969년에 제출한 최운산 장군의 서훈신청서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그 규모가 컸고 혁혁한 전과를 올린 봉오동전투를 비롯하여 우수리 전투 등 빛나는 사적이 있음에 불구하고 수상자는 2명뿐이라는데 유의하기 바라며, 수상자 1명은 최진동 장군³²⁾이고 나머지 1명 이동춘³³⁾은 최운산의 영솔하에 있었음.” 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운산장군 3형제와 더불어 무장독립전쟁에 함께 헌신했고, 대한민국 무장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김성녀는 끝내 봉오동전투와 3형제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최운산장군의 서훈 결정을 보지 못한 채 1975년에 눈을 감았다. 최운산장군은 1977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김성녀 여사는 조국광복을 염원하며 부녀들을 동원하여 3.1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민국 독립군연합군단 북로독군부 독립군들의 살림을 돌보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수천 명에 이르는 무장독립군들 먹여살렸고, 첩보활동의 한 축을 맡아 담당하였음에도 그 활동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가 치른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민족자결의 빛나는 표상이 되었던 봉오동 독립전쟁의 숨겨진 배후 세력, 여성독립운동가 김성녀 여사의 삶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후대가 사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32) 최진동 장군은 1963년 단장(독립장)에 서훈됨

33) 이동춘(1872~1940) 1963년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